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0, No. 116, pp.99-135
<https://doi.org/10.29212/mh.2020..116.99>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난중일기』의 백사정과 군영구미 위치 검토

이수경*

1. 머리말
2. 장흥 白沙汀과 碧沙驛
3. 장흥 軍營仇未와 船所
4. 맺음말

1. 머리말

우리 역사 속에서 학계 내외의 관심이 가장 큰 사건 및 인물을 꼽자면, 임진왜란과 이순신이 상위에 등장할 것이다. 따라서 그에 관련한 지리적 비정도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다양한 연구로 이어지고 또한 축적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연구들 중에는 엄

* 지역유산연구원 대표, 전남대학교 문화재학 박사.

밀한 사료 고증이나 현장 조사가 결여된 경우가 많다.

본 연구는 이순신(李舜臣, 1545~1598)의 『난중일기』에 기록된 장흥 땅 白沙汀과 軍營仇未의 위치를 고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곳은 정유재란 시기 칠천량해전 직후 수군 재건을 위한 이순신의 행보와 관련된 중요한 지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곳에 관광자원화를 위한 시설물 설치에 힘을 쏟고 있다.

전라남도는 백의종군로(2010년)와¹⁾ 조선수군재건로(2013)를 조성하여 남도 이순신길을 개발하였다. 전남의 8개 지역, 구례·곡성·순천·보성·장흥·강진·해남·진도가 해당된다.²⁾ 8개 지역은 『난중일기』를 근거로 해당 지역의 거점을 고증하였다. 그 결과 장흥 땅 백사정과 군영구미의 위치를 보성군 회천면 일원으로 비정한 후 해당 장소에 관광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였다. 2013년 이후에도 필자를 포함한 연구로 인하여 보성군 회천면 일원이 장흥 땅 백사정과 군영구미로 고착되었다.³⁾

이순신의 필사본 일기와 『이충무공전서』(1795년)에 수록된 「난중일기」에는 ‘到長興地白沙汀秣馬 到軍營仇未[龜尾]’로 기록되어 있다. 백사정과 군영구미 위치에 관계된 사료 및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

-
- 1) 백의종군로는 구례~순천 약 119km 구간을 2012년 11월 조성이 완료되었음(박창규 외, 『백의종군로 콘텐츠사업 기초조사』, 전남도립대학교·전라남도청, 2010).
 - 2) 조선수군재건로는 1597년 8월 3일 이순신이 전남 구례에 입성하여 조선 수군을 재 정비하여 9월 16일 우수영에서 명량해전을 승리로 이끈 시점까지 이동한 구간을 의미함. 조선수군재건로는 전남 연해안 8개 시·군을 연결하는 500km의 길이다(박창규 외, 『남도 이순신 길 조선수군재건로 고증 및 기초조사』, 전남도립대학교·전라남도청, 2013, 35쪽).
 - 3) 노기욱 외, 「이순신의 ‘상유십이’ 수군보존 현장 보성군 고찰」, 『이순신연구논총』 제22호,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2014; 『명량 이순신』, 전남대학교출판부, 2014, 196쪽; 이수경, 「이순신 역사문화자원의 콘텐츠 활용방안-보성군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33쪽; 「정유재란시기 이순신의 수군재건 활동과 보성군」, 『충무공 이순신과 한국해양』 제3호, 해군사관학교 해양연구소, 2016, 207쪽; 정현창, 「조선후기 전라도지역 船所址와 활용방안 연구」, 전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262~293쪽.

근래에 출간된 자료집은 기존의 ‘비정’을 무비판적으로 옮겼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사료와 자료의 생산 시기를 정리하면서 그리고 수군진의 수군 외 읍수군의 운영상을 검토하면서 이곳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느꼈다.

필자는 制勝方略制, 임진왜란 시기인 16세기 沿海郡縣의 戰船 배치와 운용,⁴⁾ 조선시대 전라좌수영 소속의 船所를 다룬 연구를⁵⁾ 접하면서 장흥 땅 백사정과 군영구미에 대해 천착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地誌類와 고지도를 중심으로 다시 살펴보았다. 아울러 현장 답사를 병행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임진왜란 시기의 유적지·전적지를 고증하는 데 도움이 되고 올바른 지방사 정립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사료 고증과 현장 조사의 결과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역사관광자원화 사업에 반영되길 기대한다.

2. 장흥 白沙汀과 碧沙驛

조선수군재건로는 『난중일기』 1597년 8월 3일 이순신이 삼도수군통제사가 되어 전남 구례에 들어온 사실을 토대로 구례 지역에서 시작되어, 9월 16일 명량해전이 펼쳐진 해남과 진도 지역이 마지막 구간이다.

1597년 7월 16일 칠천량해전에서 패전하면서 당시의 통제사 원균은 전사한다. 그 후 신속한 조치로 22일 삼도수군통제사에 재임명

4) 한성일, 「16세기 중·후반 연해 군현의 戰船 배치와 운용」, 『지역과 역사』 제42호, 부경역사연구소, 2018.

5) 송은일, 「조선시대 전라좌수영 관할지역의 船所 연구」, 『軍史』 제105호, 국방부군사편찬위원회, 2017.

된 이순신은 경남에서 전남의 해안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수군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 구례, 순천, 낙안, 보성, 장흥 지역을 순차적으로 돌면서 전선, 군사, 군량, 무기 등을 수습한다. 그중 8월 16일부터 17일까지 통제사의 이동 경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⁶⁾

- 1597년 8월 16일 맑았다. 아침에 보성 군수와 군관 등을 屈岩으로 보냈다. 피해 떠났던 관리 등을 찾아내게 했다. 선전관 박천봉이 되돌아가기에, 나주 목사와 어사 임몽정에게 답장을 써보냈다. 朴士明의 집으로 사령 등을 보냈는데, “사명의 집은 이미 비어 있다.”고 했다. 오후에 궁장 지어와 태귀생, 선의와 남해 현령 박대남 등이 들어왔다. 김희방과 김봉만이 왔다.⁷⁾

- 1597년 8월 17일 일찍 아침 식사 후에 곧장 장흥 땅 白沙汀에 이르렀다. 점심 후에 軍營仇未로⁸⁾ 가니, 온 경내가 이미 무인지경이 되었다. 수사 배설은 내가 탈 배를 보내지 않았다. 장흥의 군량 감색이 군량을 모두 훔쳐 관리들이 나누어 가져갈 적에 마침 와서 붙잡게 되어 重杖을 내렸다. 그대로 여기서 잤다.⁹⁾

- (續)¹⁰⁾ 1597년 8월 17일 이른 새벽에 길에 올라 白沙汀에 이르러

6) 『亂中日記』의 국역은 이은상, 『(國譯註解)李忠武公全書』(上), 충무공사업회, 1960; 박혜일 외, 『(번역)이순신의 일기』,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2; 송찬섭, 『난중일기』, 서해문집, 2004; 노승석, 『이순신의 난중일기(완역본)』, 동아일보사, 2005·2016(여해); 박종평, 『난중일기』, 글항아리, 2018를 참조함.

7) 『亂中日記』 丁酉年 8월 16일.

8) 이순신이 쓴 친필본 정유일기, (속)정유일기에는 軍營仇未라고 적혀 있으나, 1795년 『이충무공전서』 「난중일기」에는 軍營龜尾라 적혀 있다.

9) 『亂中日記』 丁酉年 8월 17일.

10) 이순신의 친필본 일기 중 정유년의 일기는 두 권이 전한다. 두 일기를 비교하면 겹치는 일자(8월 4일부터 10월 8일까지)가 상당하나 기록된 내용은 조금씩 다르다. 한 본은 정유년 10월 8일까지의 기록에서 끝나며, 한 본은 1598년 1월 4일까지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며 내용도 자세하다. 따라서 후자의 일기를 (속)정유일

말을 쉬게 했다. 軍營仇未에 이르니 온 경내가 이미 무인지경이었다. 수사 배설이 내가 탈 배를 보내지 않았다. 장흥 사람들이 많은 군량을 임의대로 훔쳐 다른 곳으로 가져갔기에 잡아다가 곤장을 쳤다. 날이 벌써 저물어 그대로 머물러 잤다. 배설이 약속을 어긴 것이 서운하였다.¹¹⁾

번역자 및 연구자들은 위에 제시된 『난중일기』를 기반으로 백사정과 군영구미의 위치를 다음처럼 비정하였다.

<표 1> 백사정 및 군영구미 위치 비정¹²⁾

연구자	백사정	군영구미
이은상(1960) ¹³⁾	·	강진군 고군면 병영
보성군향토사편찬위원회(1974) ¹⁴⁾	보성군 회천면 벽교리 명교마을	보성군 회천면 전일리 군학마을
문영구(1978) ¹⁵⁾	보성군 회천면 벽교리 명교마을	보성군 회천면 전일리 군학마을
조성도(1989) ¹⁶⁾	·	강진군 고조면
박혜일 외(1998) ¹⁷⁾	장흥군 장흥읍 원도리 벽사역	강진군 대구면 구수리
송찬섭(2004) ¹⁸⁾	장흥군 장흥읍 원도리	강진군 병영
노승석(2005) ¹⁹⁾	장흥군 장흥읍 원도리	강진군 대구면 구수리
박형상(2007) ²⁰⁾	보성군 회천면	장흥군 안양면 해창마을
전남도립대학·전라남도(2013)	보성군 회천면 벽교리 명교 해수욕장 ²¹⁾	보성군 회천면 전일리 군학마을 ²²⁾
노승석(2016) ²³⁾	장흥군 장흥읍 원도리	보성군 회천면 전일리 군학마을
박종평(2018) ²⁴⁾	보성군 회천면 벽교리 명교마을	보성군 회천면 전일리 군학마을 강진군 대구면 구수리

기라고 본문에서 지칭함을 밝혀둔다. 참고로 『이충무공전서』(1795)의 「난중일기」는 1597년 10월 8일까지 기록된 전자의 일기만을 수록하였다. 본고에서는 친필본 두 본을 같이 참조하였다.

11) 『亂中日記』(續)丁酉年 8월 17일.

12) 이은상은 백사정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군영구미는 강진군 고군면 병영으로 보았다. 조성도는 군영구미를 강진군 고조면으로 보았다. 보성군 향토사학자 박태전은 『보성군 향토사』(1974)에서 백사정은 보성군 회천면 벽교리 명교마을, 군영구미는 전일리 군학마을로 추정하였다. 문영구는 『보성군 향토사』에 수록된 백사정

언급되고 있는 백사정, 군영구미를 현재의 보성군 회천면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먼저 이순신의 從事官으로 활동한 정경달(丁景達, 1542~1602)이 지은 亭子 白沙亭이 장흥부 회천면 바닷가에 있었다는 18세기 후반의 기록이 전해지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회천면의 행정구역이 조선시대에는 장흥부에 속하였으나, 1914년 행정개편 이후 보성군으로 편입되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회천면 군학마을에 城 터라고 주장하는 유적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1597년

과 군영구미의 위치 비정에 찬성하면서 더 구체화시켰다. 예를 들어, 명교마을 535번지 터 白沙亭으로 언급한 것을 들 수 있다. 박태전과 문영구는 하얀 모래사장 백사정이 아닌 정자 백사정으로 비정하였다. 1990년대 이순신의 『난중일기』는 여러 번역자에 의해 번역되었다. 박혜일은 장흥 땅 백사정과 군영구미를 장흥군 원도리 碧沙驛과 강진군 대구면 구수리로 보았다. 백사정을 조선시대 驛站 일을 보던 察訪이 있었던 벽사역으로 본 최초의 연구자이다. 그 근거를 잘방역이 있었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후 송찬섭, 노승석은 선행된 지명을 반반씩 언급하였다. 이에 대한 근거는 명시되지 않았다. 박중평은 선행된 연구 성과를 일괄 소개하였다.

- 13) 이은상, 앞의 책(1960), 562쪽.
- 14) 보성군향토사편찬위원회, 「중교와 문화-제3절 會寧浦城과 龜尾營」, 『보성군 향토사』, 호남문화사, 1974, 116쪽, 118~120쪽; 이 자료는 백사정과 군영구미를 보성군 회천면 명교마을, 군학마을이라 비정한 기록이다.
- 15) 문영구, 「전라좌수영 및 관하 五官·五浦의 사적」, 『여수 수전대논문집』 제92권, (사)대한건설진흥회, 1978.
- 16) 조성도, 『충무공의 생애와 사상』, 명문당, 1989, 317쪽.
- 17) 박혜일 외, 앞의 책(1998), 241쪽 도판, 285쪽, 299쪽; 박혜일은 일기의 본문에서는 백사정과 군영구미의 위치를 언급하지 않고, 후반부에 수록된 도판과 지명을 비정하면서 이를 수록하였다.
- 18) 송찬섭, 앞의 책(2004), 320쪽, 378쪽.
- 19) 노승석, 앞의 책(2005), 435쪽.
- 20) 박형상, 「이충무공과 전라도 장흥의 관계 연구」, 『이순신연구논총』 제9호,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2007, 292~297쪽.
- 21) 박창규 외, 앞의 보고서(2013), 56쪽; 전술하였듯이 이순신은 ‘到長興地白沙汀秣馬 到軍營仇未[龜尾]’라고 기록하였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서는 ‘보성 白沙亭’으로 항목을 설정하였다. 정자 白沙亭과 물가 白沙汀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였다; 77쪽에는 군대 연변장과 흡사한 모래사장이 있다고 기술함.
- 22) 박창규 외, 앞의 보고서(2013), 35쪽
- 23) 노승석, 『이순신의 난중일기』, 도서출판 여해, 2016, 455쪽.
- 24) 박중평, 『난중일기』, 글항아리, 2018, 469쪽, 558쪽

8월 17일 이순신 일행은 장흥부 회천면에 있는 정경달이 지은 정자 백사정에 들러 사람과 말이 쉬었으며, 인근 龜尾營城 터가 남아 있는 군학마을에서 하루 유숙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필자는 장흥 땅 백사정과 군영구미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강진, 보성, 장흥 지역의 문헌 조사와 수차례의 현장 답사를 하였다. 먼저 백사정에 대해 살펴보겠다.

백사정은 하얀 모래사장 혹은 하얀 모래톱의 의미로 사용하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장흥 땅 백사정이란 곳도 장흥의 하얀 모래사장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지형상 장흥의 하얀 모래사장은 강변이나 바닷가로 특정한 곳을 지칭하는 고유명사가 될 수 없다.

앞에서 제시한 1597년 8월 17일의 일기를 정리하면, ① 장흥 땅 白沙汀에서는 점심을 먹을 수 있어야 하며 ② 보성읍성에서 일찍 출발하여 군기를 신고 온 말도 쉬게 해야 했다. 통제사 일행이 점심을 해결할 수 있고 말도 쉴 수 있는 곳은 당시 驛院이어야 한다. 이와 유사한 행보를 이순신의 『난중일기』에서 간추려 보았다.

<표 2> 『난중일기』 ‘點心, 點’ 용례 검토

날 짜	내 용	관련 장소	
1592년 3월 14일	...간신히 先生院에 가서 말을 먹이고 해동창평에 이르니 길가에 물 깊이가 거의 석 자나 괴어 갓은 고생 겪으며 순천부에 다다랐다...	순천 선생원	
1 5 9 6 년	윤8월 18일	일찍 출발하여 陽江驛에 도착하니 종사관 김응은 서울로 올라갔다. 점심을 먹은 뒤, 산성[남양]으로 올라가 멀리 바라보아 각 포구와 여러 섬들을 손으로 짚어가며 살펴보고, 그 길로 홍양으로 향했다(...).	홍양[고흥] 양강역
	윤8월 20일	일찍 출발하여 배를 타고 체찰사와 부찰사와 함께 종일 앉아 군사 일을 이야기했다. 늦게 白沙汀에 이르러 점심을 먹은 뒤에 그 길로 장흥부에 이르렀다. 나는 관청의 동헌에서 잤는데, 김응남이 와서 만났다.	장흥 백사정
	윤8월 29일	비가 조금 내렸다. 이른 아침에 男女驛 ²⁵ 에 도착했다. 점심을 먹은 뒤에 해남현에 이르렀다. 소곡진을 본영으로 보냈다.	해남 남녀역 (남리역)
	9월 1일	일찍 출발하여 石梯院에 도착하여 점심을 먹고 이경에 영암으로 가서 향사당에서 잤다...	강진 석계원
	9월 3일	아침에 떠나 나주 新院에 이르렀다. 점심을 먹은 뒤 나주 관관을 불러 고을의 일들을 물었다.	나주 신원
	9월 6일	먼저 무안으로 가겠다고 체찰사에게 고하고 길에 올랐다. 古莫院에 이르러 점심을 먹고 나니 나주 감목관 나덕준이 뒤쫓아와서 서로 만났다...	나주 고막원
	9월 8일	...저물녘에 東山院에 와서 말에게 여물을 먹이고 말을 재촉하여 임치진에 이르니...	무안 동산원
	9월 9일	...아침 식사 후에 뒷성으로 올라가 형세를 살펴보고 東山院으로 돌아왔다. 점심을 먹은 뒤 함평현에 가다가 도중에...	무안 동산원
1 5 9 7 년	4월 27일	일찍 출발하여 송치에 이르니 구례현감이 사람을 보내어 점심을 지어 먹고 보내게 했다. 순천 松院에 이르자 이득종과 정선이 와서 문안하였다...	순천 송원
	8월 4일	아침 식사 후에 鵬線江院에 이르러 점심밥을 짓고 말의 병을 고쳤다...	곡성 압록강원
	8월 17일	일찍 아침 식사 후에 곧장 장흥 땅 白沙汀에 이르렀다. 점심 후에 軍營仇未로 가니, 온 경내가 이미 무인지경이 되었다.	장흥 백사정

앞의 표는 1592년 이순신이 전라좌수사 시절 순천부로 향하는 일정, 1596년 통제사 시절 체찰사와 체찰부사를 모시고 전라 좌·우도 지역을 순찰하는 일정이다. 1597년은 통제사로 재임명되어 전라 우도 쪽으로 향하는 일정이다. 통제사가 점심을 먹은 장소, 지어 먹은 장소, 말에게 여물을 먹이는 장소가 대개 驛과 院이었다. 백사정에서 점심을 먹었다고 하므로, 이곳은 역원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장소, 혹은 역과 원에서 가까운 지역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필자도 통제사 일행이 점심을 먹고, 말이 쉴 수 있는 白沙汀을 백사역과 가까운 물가로 추정한다. 8월 17일의 일기를 구체화시키면, ‘이순신 일행은 보성읍성에서 장흥 백사역을 목적으로 이동하는 중 백사역 인근 물가 백사정에 이르자 먼저 말에게 물을 먹이고, 백사역으로²⁶⁾ 들어가 조선 수군 일행도 점심을 먹었다.’고 설정하겠다. 그렇다면 백사정은 백사역 인근의 장흥 沔陽江[현재는 耽津江으로 불림]의 강변 둔치로 추정된다.

25) 南利驛이나 이순신은 男女驛으로 기록하였다.

26) 백사역은 고려시대에 ‘碧山驛’이었다(『고려사』 권82, 「志」 권36, 참역, 昇羅州道 掌三十(승라주도 소속 30개 역은 靑巖(羅州), 仙巖·敬陽(光州), 德奇(潭陽), 慶新·淸淵·龍溪(務安), 廣里(南平), 仁物(綾城), 永新(珍原), 烏林(鐵治), 嘉林(和順), 綠沙(靈光), 丹巖(長成), 靑松(茂松), 街豐(咸豐), 德樹(牟平), 永保(靈嶺), 通谷(道康), 淙山(海南), 碧山(遂寧), 別珍(竹山), 南里(黃原), 軍知(福成), 嘉新(寶城), 波淸(兆陽), 樂新(樂安), 益新·蟾居(光陽), 栗陽(昇州)이다). 1426년(세종 8)의 기록에서는 ‘碧沙驛’이 출전되므로 세종시기 무렵 역명이 백산역에서 백사역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世宗實錄』 권32, 8년 4월 甲申). 1462년(세조 8) 백사역을 비롯하여 보성의 可申驛·波靑驛, 흥양의 楊江驛, 낙안의 洛昇驛, 강진의 鎭原驛·通路驛, 해남의 綠山驛·別珍驛·南利驛 등 모두 10개가 있었다. 백사도는 장흥에서 서쪽의 강진군, 해남군, 진도군으로 이어지는 역로, 장흥 동쪽의 보성군 및 고흥군으로 이어지는 역로, 그리고 장흥의 남쪽으로 이어지는 역로 등을 관할했다. 백사역은 조선시대의 호남지방에 있던 6개의 찰방역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역졸을 거느린 곳이었다. 1747년 『장흥읍지』의 백사역은 말이 총 95 필이었으며, 백사역에 소속된 驛吏는 515명, 驛奴는 1,757명, 驛婢는 92명이었다. 이 역도는 1896년 폐지되었다(『호남읍지』(1871년, 奎12175) 장흥도호부; 『世祖實錄』 권29, 8년 8월 丁卯; 『湖南驛誌』(1872년, 奎12175); 『長興邑誌』 부동방 역원 조 참고).

기존의 연구에서는 백사정을 보성 회천면 벽교리의 명교마을 앞 해안가 넓은 모래 둔치라 비정하였다.²⁷⁾ 그러나 말에게 바닷물을 먹일 수는 없다. 120명이 넘는 군사가 모여서²⁸⁾ 바닷가 백사정이란 정자에서 점심을 해결하는 것도 불가능해 보인다. 따라서 말과 사람이 쉴 수 있고 점심을 먹을 수 있는 장소로 역을 예상하였고, 보성 읍성에서 장흥 벽사역으로 이동하는 동안 만날 수 있는 장흥 땅 백사정은 벽사역 인근 예양강의 모래 둔치로 판단된다.²⁹⁾

1872년 장흥부 고지도에서는 大路와 小路가 확인되며, 대로는 국도 2호선에 해당하며, 소로는 웅치면 帝岩山 곰재[웅치]를 넘는 길이다. 대로는 1918년 제작된 장흥 지형도에서도 관찰된다.³⁰⁾ 조선 시대의 행정구역으로 보면 보성읍성에서 출발하여 장흥 웅치면, 장동면, 용계면을 거쳐 부동면 벽사역까지 약 21km를 이동한 셈이다. 당시 120여 명의 군사와 무기를 실은 말이 이동할 수 있는 길은 대로로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소로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소로를 타고 이동하면 제암산의 웅치를 넘어야 한다. 대로와 소로 중 당시 어느 길로 이동하였는지 알 수는 없다. 추후 고증이 필요하겠지만, 필자는 조선수군 일행이 대로를 타고 이동한 것으로 여긴다. 보성읍성에서 대로를 타고 벽사역을 향해 이동할 때 만나는

27) 노기욱 외, 앞의 논문(2014); 앞의 책(2014), 196쪽; 이수경, 앞의 논문(2016), 33쪽; 정현창, 앞의 논문(2017), 262~293쪽.

28) 「행록」에 따르면 1597년 8월 초부터 18일 사이에 순천에서는 병정 60여 명을 얻고, 보성에 이르러서는 120명이 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29) 이수경, 「임진왜란 시기의 통제영 운영과 유적 활용방안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0, 81~82쪽에서는 『湖南驛誌』 「碧沙圖」(1895)에 기록된 堤防, 방죽(현재 장흥읍 축내리 축내저수지)으로 보았다.

30) 보성군청에서 대로와 소로를 도보 답사한 결과 약 21km의 거리가 측정되었다. 대로는 보성군청-보성읍 원봉삼거리-국도 2호선 구간인 웅치면-장동면-장흥읍 원도리까지 약 21km이다. 소로는 보성군청-보성읍 원봉삼거리-웅치면사무소-제암산 자연휴양림 내 입장-관리사무소-곰재 등산로-곰재 사거리-제암산 주차장-장흥읍 원도리까지 약 21km를 도보로 7시간 동안 답사하였다(2020.05.01.). 통영 길문화연대 대표님과 회원 여러분께 지면을 통해 감사 인사 올립니다.

장흥 땅 백사정은 예양강[탐진강] 인근의 강변 둔치이다. 만약 소로를 타고 이동하였다면 벽사역 방향으로 이동할 때 만나는 장흥 땅 백사정은 제암산에서 발원하여 흐른驛川[현재는 부동천으로 부름] 인근의 강변 둔치이다. 따라서 백사정을 넓게 보면 벽사역에 도착하기 전의 예양강 강변 둔치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필자의 몇 차례 현장을 답사하면서 걸어본 결과 대로와 소로의 이동 거리는 비슷하였으나, 군사 이동이기 때문에 재를 넘는 소로보다는 대로를 통한 행보로 결론짓겠다. 즉 대로로 이동하면서 만나는 장흥 예양강 둔치가 하얀 모래, 백사정이다.

장흥부 고지도를 통해 대로와 소로, 그리고 예양강과 역천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1750년경 비변사인방안 장흥지도



* 출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그림 2> 1872년 장흥부지도



* 출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奎10439.

위의 장흥부 고지도에는 畝城을 중심으로 큰 강이 그려졌다. 이 강이 汭陽江·汭江(현재 탐진강)이다. 읍성 東門 앞에서 예양강과 합수하는 작은 물줄기는 驛川(현재 부동천)이다. 1918년의 장흥 지형도와 지금의 지형도에서 그 모습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3> 1918년 장흥지형도



* 출처: 국토정보지리원.

<그림 4> 현재의 장흥



* 출처: 구글지도 편집

다음은 지리지에서 살펴보겠다. 『長興邑誌』(1747) 府東坊의 閭里條에서 驛村은 백사역이 있는 곳을 칭하며, 부동방의 山川條에 기록된 驛川은 백사역 뒤로 흐르는 강을 칭한다. 부동방의 橋梁條에는 驛川橋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강폭이 상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역천은 현재의 부동천에 해당되며, 역천교는 현장 조사 결과 현재의 원도교이다. 조선시대 이 일대는 부동면 沙上里·碧沙中里·下里에 해당된다.³¹⁾ 이곳이 1912년에는 부동면 上里·中里·冬柏里·元道里로 개편되었고, 1932년 11월 부동면이 장흥면과 합병됨에 따라 현재는 장흥읍에 속하게 되었다.

이순신은 그전에도 장흥 백사정을 방문하였다. 1596년 윤8월 당시는 홍양[현재의 고흥] 녹도진에서 배를 타고 백사정으로 들어왔다. 다음의 일기를 보자.

- 1596년 윤8월 19일 녹도로 가는 길에 도양의 둔전을 살펴보았다. 체찰사는 얼굴에 희색이 만연했다. 녹도에 도착하여 잤다.³²⁾
- 1596년 윤8월 20일 일찍 출발하여 배를 타고 체찰사와 부찰사와

31) 『戶口總數』(1789) 府東面.

32) 『亂中日記』 丙申年 윤8월 19일.

함께 종일 앉아 군사 일을 이야기했다. 늦게 白沙汀에 이르러 점심을 먹은 뒤에 그 길로 장흥부에 이르렀다. 나는 관청의 동헌에서 잤는데, 김응남이 와서 만났다.³³⁾

위의 일기는 1596년 체찰사, 체찰부사, 통제사 일행이 흥양 녹도진에서 장흥부로 들어오는 과정을 기록하였다. 당시 일행은 녹도진에서 머물렀으며, 다음 날 녹도진에서 전선을 타고 장흥부로 들어왔다. 기존의 주장은 체찰사 일행을 모시고 회천면 벽교리 명교 바닷가 백사정에서 하선하여 점심을 해결하였다고 한다. 문맥상 백사정이 전선의 정박처가 될 수 있다. 따라서 1597년 8월 17일의 백사정도 전선의 정박처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순신이 굳이 군영구미로 가서 전선을 탈 필요가 없어 보인다. 즉 백사정이 전선의 정박처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경우는 전선을 某處에³⁴⁾ 정박하고 벽사역으로 이동하여 점심을 먹은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백사정이 보성군 회천면 벽교리 명교해수욕장이라는 典據를 검토함으로써 필자가 주장하는 것과 비교해 보겠다. 1914년 행정구역의 변화가 있기 전 보성군 회천면은 장흥에 소속되었다. 그래서 1914년 이전의 자료는 장흥부에서 살펴보았다.

<표 3> 조선시대 지리지에서 白沙汀, 白沙亭 용례 검토

문헌	내용
『長興邑誌』 (1747)	會寧坊 ³⁵⁾ 臺榭 白沙亭 在浦村東數里明沙四面清江海棠青松隱映左右果以勝地南中有名丁景達有詩鶻詠作白沙亭歌與記其後卞時會來兩進士 ³⁶⁾ 自寶城移居汀畔時時遊詠 ³⁷⁾

33) 『亂中日記』 丙申年 윤8월 20일.

34) 후술할 군영구미에 해당된다.

35) 1914년 4월 1일 장흥군 회령면·천포면·웅치면이 보성군에 편입되었다. 회령면과 천포면은 통합되어 회천면이 되었다.

조선 후기 『장흥읍지』에는 회령방의 정자 백사정에 관한 기록이 있다. 정경달이 지은 정자이다. 물가 백사정에 대한 기록은 검토되지 않았다. 이유는 백사정은 하얀 모래사장이므로 어느 특정한 곳을 지칭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바닷가, 강변의 모래사장은 모두 백사정이므로 지리지에 특별히 오를 이유가 없다.

<표 4> 근·현대 지리지·마을유래지에서 白沙汀, 白沙亭 용례 검토

문헌	내용
『長興邑誌』 (1910)	會寧坊 臺榭 白沙亭 在浦村東數里明沙四面清江海棠青松隱映左右果以勝地南中有名丁景達有詩 觴詠作白沙亭歌與記其後卞時會來兩進士自寶城移居汀畔時時遊詠 ³⁸⁾
『寶城郡誌』 (1924) ³⁹⁾	기록 없음
『寶城誌』 (1966)	會寧坊 臺榭 白沙亭 在浦村東數理明沙四面清江海棠青松隱映左右果以勝地南中有名丁景達有詩 觴詠作白沙亭歌與記 丁酉再亂李忠武來此水軍備處 其後卞時會卞時來兩進士自寶城移居遺詠 ⁴⁰⁾
『보성군 향토사』 (1974)	'이충무공의 난중일기를 보면 정유년 8월 17일에 보성에서 장흥 땅 白沙亭에(지금의 회천면 명교리 앞에 있었음) 이르러 말을 먹이고 군영구미에 이르니 일대가...'라고 하였다. ⁴¹⁾
『보성군 마을유래지』 (1990)	'백사정이 회천군 명교리이며 마을 앞 해변에 있었다고 한다. 이 충무공의 난중일기에 보면, 정유년 8월 17일에 보성(당시는 장흥 땅)에 이르러 말을 먹이고 군영구미에 이르니, 이곳 일대가 모두 무인지경이 되었으며 여기서 전열을 정비한 다음 왜적과 싸워 전승을 올렸다는 기록이 있으며 지금은 빈터만 남아 있다.'고 기록 ⁴²⁾

36) 『庚午式年司馬榜目』- 변시래(卞時來, 1668년~?)의 자(字) 내숙(來叔), 본관 초계(草溪), 거주지 낙안(樂安), 부(父)는 변유망(卞惟望), 형(兄)은 변시회(卞時會), 변시중(卞時中), 제(弟)는 변시최(卞時最)이다. [진사] 숙종(肅宗) 16년(1690) 경오(庚午) 식년시(式年試) [진사] 3등(三等) 21위(51/100)이다; 『乙酉增廣別試司馬榜目』- 변시회(1657년~?)의 자(字)는 회숙(會叔), [생원] 숙종(肅宗) 31년(1705) 을유(乙酉) 증광시(增廣試) [생원] 3등(三等) 22위(52/100). 따라서 변시래, 변시회는 임진왜란 시기 활동한 인물이다.

37) 『長興邑誌』(1747).

38) 『長興邑誌』(1910).

39) 『寶城郡誌』(1924), 朴南鉉 等編.

1910년대 이후 발간된 장흥과 보성 지역의 지리지에는 백사정을 정경달이 보성군 회천면 바닷가에 지은 정자 백사정으로 보았다. 이유는 임진왜란 시기 이순신과 정경달의 관련성을 두었기에 때문이다. 이순신이 한산도 통제영에서 종사관으로 거느린 바 있던 정경달의 생활근거지가 이곳이었기 때문이다. 백사정으로 나아가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이곳에서 약 10리 거리에 있는 전선이 출입할 수 있는 옛 軍港地인 군영구미(군학)에 도착했을 것으로 보았다.⁴³⁾ 2013년 『조선수군재건로 고증 및 기초조사』에서도 정자 백사정을 운운하고 있다.⁴⁴⁾ 즉 정경달이 바닷가에 지은 정자 백사정으로 단정하고 그곳으로 비정한 것이다. 그러나 『난중일기』에는 정자 백사정이 아니라 물가 백사정이 기록되어 있다.

정경달의 年譜와 『盤谷集』에 의하면 정경달은 임진왜란 이후 1599년에 장흥 회령 白沙에 靑嵐臺와 海隱堂을 지었다.⁴⁵⁾ 정자를 지은 시기가 임진왜란 이후이다. ‘1599년 3월 17일, 나귀를 타고 白沙亭에 이르러서 통발을 묶어두고 시를 읊조린 뒤에 돌아왔다. 온갖 꽃이 피고 숲이 무성하니, 한 잔 술에 거나하게 취했다.’라는 내용으로 보아 정경달은 회령 백사정[청람대, 해은당]에 관한 시를 남겼다. 그의 문집에는 白沙亭歌가 수록되지 않았다. 다만 청람대와 해

40) 『寶城誌』(1966), 보성향교 발행.

41) 보성군향토사편찬위원회, 「종교와 문화-제3절 會寧浦城과 龜尾營」, 『보성군 향토사』, 호남문화사, 1974; 이후 문영구는 백사정을 보성군 회천면 벽교리 명교마을 535번지 터의 정자 白沙亭이라 함. 명교마을 앞 백사장 북쪽 약 백 미터 언덕에 반곡 정경달이 세운 정자가 있었다는데 중년에 헐어지고 지금은 林295평 터만 남아 있다고 기록함(문영구, 「全羅左水營 및 管下 五官·五浦의 史蹟」, 『여수논문집』제9~12권, (사)대한건설진흥회, 1978).

42) 보성문화원, 『보성군 마을 유래지』, 1990.

43) 문영구, 앞의 논문(1978), 63~64쪽.

44) 박장규 외, 앞의 보고서(2013), 56쪽·77쪽.

45) 「盤谷年記」, 『盤山世稿』, 서울아세아문화사, 1987, 358쪽; 丁景達, 『盤谷集』권 1, 詩, 靑嵐臺謾興臺在會寧白沙. 自號靑嵐君士; 海隱堂序(余堂于白沙, 扁以海隱. 客曰, 何謂隱□ 曰隱於海也. 曰何用隱爲□ 曰居世不樂, 而入海有樂).

은당을 노래한 시가 있다. 정경달 사후에 변시래, 변시회 형제가 이곳을 방문하여 백사정가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

백사정이 보성군 회천면 벽교리 명교해수욕장이라는 전거를 검토한 결과, 1966년에 발간된 『보성지』의 ‘白沙亭이 정유재란 시기 이순신의 수비처였다.’라는 기록은 보성군 향토사(1974), 문영구(1975)의 연구, 보성군 지명유래지(1990), 조선수군재건로를 고증한 기초조사 보고서(2013)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1596년 윤8월 20일의 일정은 고흥 녹도진에서 전선으로 장흥 모처에 도착, 말을 타고 벽사역으로 이동하여 점심을 해결하였다. 반면, 1597년 8월 17일은 예양강 인근의 백사정에서 말을 쉬게 한 후 벽사역으로 이동하여 점심을 먹고, 다시 말을 타고 이동하여 군영구미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

1597년 8월 17일 보성읍성을 출발한 이순신 일행은 驛路를 따라 이동하였을 것이다. 행로는 보성읍성-보성 가신역-장흥 벽사역으로 볼 수 있으며, 이 행로는 현재의 국도 2호선의 일부 구간에 해당한다. 보성군청에서 지방도로 광주~보성 도로를 타고 4km 정도 이동하면 보성군 원봉삼거리(옛 可申驛 인근으로 추정됨)가 나온다. 여기서부터는 국도 2호선을 타고 장흥 방면으로 18km를 이동하면 장흥읍 원도리 벽사역 터에 도착한다. 현재 벽사 일대의 흔적은 장흥읍의 觀德里와 元道里 일대이다. 이 일대에 벽사역 관아 및 馬房 옛터가 있다.⁴⁶⁾

일부 연구자가 주장한 보성군청에서 봇재를 넘어 회천면 울포해수욕장, 명교 해수욕장까지의 거리를 측정해 보니 약 20km로 측정된다. 필자가 주장하는 거리도 약 20km이다.⁴⁷⁾

46) 장흥문화원, 『장흥읍지-2편 마을사』, 2018, 관덕마을 연혁(837쪽), 원도리 1구 마을 연혁(112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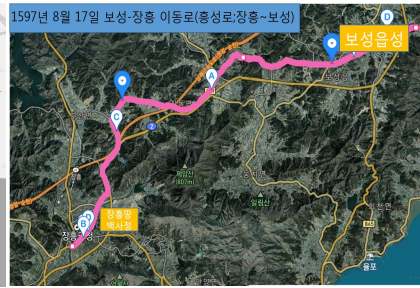
47) 본고를 작성하기 위해 보성군청에서 웅치면 곰재를 넘어 장흥 금산저수지를 경유하여 벽사역 터까지 도보한 결과 20km의 거리가 측정되었다. 이는 고지도상의

지금까지의 내용을 근거로 이동경로를 정리하면, 보성군청에서 출발하여 장흥읍 원도교를 지나 관덕리·원도리 일대에 도착한 일정이다. 이를 현재의 지도에 표시하면 흥성로 구간에 해당된다.⁴⁸⁾

<그림 5> 기존 조선수군재건로 중 보성 구간(17km)⁴⁹⁾



<그림 6> 1597년 8월 17일 보성-장흥 이동로(20km)



3. 장흥 軍營仇未와 船所

다음은 군영구미에 대해 살펴보겠다. 1597년 8월 17일 장흥 땅 백사정, 예양강변을 거쳐 벽사역에서 점심을 먹은 조선 수군 일행은 軍營仇未에 이른다. 일기 번역자 및 연구자들이 비정한 군영구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은상은 강진군 고군면 병영으로 보았고, 조성도는 강진군 고조면으로 보았다. 그러나 고조면은 강진군에 존재하지 않은 면이다.

소로에 해당된 길이다. 대로에 해당된 길은 지방도로와 국도 2호선으로 차량으로 거리를 측정하였다.

48) 보성읍성에서 장흥 벽사역 관아 터까지 이르는 옛 길을 고증하는 일은 차후의 과제로 삼고자한다. 현재 흥성로(장흥과 보성을 잇는 길)를 따라 대략 표시해 둔다.

49) 박창규 외, 앞의 보고서(2013), 133쪽.

‘군영’을 염두하여 강진군 병영으로 보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인용된 일기를 놓고 보면 첫째, 통제사 이순신이 타야 할 전선이 육군의 병영에 있는지의 여부이다. 둘째, 일기의 내용 상 백사정, 군영구미는 장흥에 소속된 곳이다. 장흥 땅 백사정에 도착하였다는 점, 군영구미에 도착하니 장흥 사람들이 군량을 옮겨간 것에 대한 기록, 다음날 8월 18일 장흥에 소재한 회령포진으로 이동한 기록을 놓친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군영구미는 강진군 병영으로 볼 수 없으며 장흥으로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향토사학자들이 비정한 장소에 대해 살펴보면, 1974년 『보성군 향토사』에 수록된 군학마을의 口傳되는 龜尾營 이야기를 토대로 군영구미를 회천면 전일리 군학마을로 비정하였다. 게다가 이곳에서 배설의 전선을 인수한 회령포진으로 이해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1990년대 박혜일은 군영구미를 강진군 대구면 구수리로 보았다. 그 근거로 仇未와 九修의 音價가 통한다고 보았고, 『신증동국여지승람』과 「대동여지도」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언급한 지리지와 고지도에는 그 직접적 근거로 삼을만한 내용이 없다.⁵⁰⁾ 전술하였듯이 장흥 사람들이 군량을 옮겨간 것에 대해 언급한 것을 전제하면 강진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013년의 『조선수군재건로 고증 및 기초조사』에 수록된 군영구미는 다음과 같다.⁵¹⁾

50) 박형상, 앞의 논문(2007), 293쪽.

51) 박창규 외, 앞의 보고서(2013), 57쪽~58쪽.

- 옛 지명은 회리포로 불렀음. 마하수 장군이 군선을 가지고 와 군수 물자를 이동한 곳임
- 1457년 이곳에 수군만호진이 개설됨으로써 군영구미라 불리오다 1554년 호남진지 회령포진지에 의하면 회령면 회리포라 부른 기록이 있음(호남진지2, 회령포진지)
- 군영구미 옛터에는 김명립 비와 성지가 남아 있음
- 군학마을은 경주김씨 이전에도 여러 성씨가 살았다는 설이 있으나 사적은 없고 경주김씨 낙향 선조이신 김명립이 1558년 경기도 광주에서 이곳으로 이주해 정착하면서 마을이 형성되었음
- 군영구미는 회천면 군학마을로 회천면 전일 2리이다(이충무공전서 10권 행장)
- 임란시기 구미영성이라 칭함. 이충무공은 군학에서 배에 올라 회령포(장흥 회진)로 향하였음
- 고려시대 태조 23년 영현인 대로현이 회령현으로 바뀌었음. 인종 2년에 영현인 회령현이 영암군 소속에서 부로 승격되어 독립된 장흥 부로 소속을 옮김
-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보성군에 이속됨. 1931년 조선총독 부령 제100조에 의한 행정구역 변경으로 1932년 3월 장흥군 회령면과 천포면을 합하여 회천면으로 개칭. 현재에 이르고 있음

위의 군영구미에 대한 조사기록을 살펴보면, 문헌 『이충무공전서』와 『회령포진지』, 김명립의 비를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관련 문헌과 김명립의 비문에는 군영구미의 위치에 대한 내용이 없다.

우선 -仇未에 대해 풀어나가겠다. 이순신의 일기 등에는 軍營仇未, 梨木龜尾, 元頭龜尾, 花樽龜尾 등 여러 -구미 지명 나온다.⁵²⁾ 먼저 -구미에 대한 다양한 연구성과가 있다. 박형상은 다음과 같이

52) 『亂中日記』 壬辰年, 2월 19일; 乙未年 7월 23일; 壬辰年 9월 1일.

주장하였다.⁵³⁾ -구미에 대해서는 국어학계의 지명연구서에도 체계적인 설명이 없고, 『표준국어대사전』 등 남한의 국어사전에도 없다. -구미에 관한 지명 연구자의 주된 견해는 『난중일기』에 나타나는 여러 구미들의 행간적 문맥, 장소적 맥락과도 잘 맞아 떨어진다. 이순신은 -구미에 이르러 말에서 배로 갈아타거나, -구미를 통하여 선박 이동을 하였다. 박형상도 이러한 사례를 장흥 땅에서 찾았다. 장흥 회진의 ‘삭금 포구’ 역시 ‘삭그미-삭금이-삭금’으로 변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군영구미 유래를 ‘장흥 안양 海倉 앞바다의 似龜[자라섬])명칭에 착안하여 龜尾로 비정한다고 하였다.⁵⁴⁾

정현창은 다음처럼 주장하였다. 구미=仇未=기미=진(津)의 관계와 상통한다. 구미와 기미는 동일 語辭의 異形 관계이거나 유추에 의한 혼용이다. ‘개’와 같은 의미인 浦, 津, 金, 串과 모두 상응한다. 즉, 浦=개=구미=곶(串)=갑(甲)등의 관계가 성립한다고 하였다. 즉 군영구미는 군영포다. 그리고 이곳에는 조선시대 翰船인 揮擺船을 만들었던 조선소의 자리도 전하고 있다. 이곳의 선소는 현 보성군 전일리 군학마을 선착장이었을 것이며, 이곳은 수심이 깊어 良港으로 이름난 곳이다. 군영구미 동쪽 언덕 아래 해안 쪽으로 새우양식장을 만들려다가 중단한 석둔이 있는 곳 부근은 옛 휘리기미 마을과 그 아래 조선소가 있던 자리로 여겨진다고 주장하였다.⁵⁵⁾

53) 박형상은 다음과 같은 연구 성과를 제시하였다. 장승옥은 ‘구미’를 ‘바닷가나 강가에서 물이 땅속으로 깊숙이 들어간 곳, 灣’으로 보았다. 허재영은 ‘구미’는 ‘곶의 異형태’라고 하면서 ‘곶’이 ‘뺨어 나온 지형’도 되지만, ‘움푹 파인 곳, 구무, 굽’도 된다고 보았다. 천세영은 ‘鳩尾’에서 단서를 찾아 ‘명치, 인체의 굽소’를 뜻하는 ‘지리상 요처’로 보았다. 그리고 『조선말 큰 사전』에는 ‘구미’는 바닷가나 강가의 곶이 길게 뺨고 후미지게 휘어진 곳, ‘곶’은 바다로 뺨어 나온 모양을 한 곳이라 지칭하였다. 김형주는 ‘金, 九味는 바닷가 지형이 극처럼 오목하게 들어간 지형으로, 곶이 또는 구지 지형의 반대 형이다.’고 말하였다.

54) 박형상, 앞의 논문(2007), 243쪽.

55) 정현창, 앞의 논문(2017), 243~251쪽.

필자 또한 그동안 군영구미를 보성군 회천면 전일리 군학마을에서 전래되고 있는 城머리, 사장터, 불무골, 鎭박끝 등 지명이 남아 있어 현장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곳을 군영 터로 이해하였다. 그리고 현재 군학마을의 옛 지명이 휘리구미라 전해지고 있어서 군영구미를 보성군 회천면 군학마을로 추정하였다.⁵⁶⁾ 결국 회령포진의 옛터를 군영구미로 이해한 것이다. 그러나 회령포진의 옛터는 옛터일 뿐이다.

따라서 ‘-구미의 어미의 뜻으로 보아 이순신은 -구미에 이르러 말에서 배로 갈아타거나, -구미를 통하여 선박 이동을 하였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다음은 軍營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 1597년 8월 17일의 일기를 통해 ① 장흥 땅 군영구미는 전선이 닿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즉 포구, 선소, 나루터 뜻을 포함한 구미여야 한다. ② 군량과 그 군량을 관리하는 군량 감색이 있어야 한다. 즉 軍倉과 官吏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③ 통제사 및 조선 수군 일행이 머물러 잘 官廳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곳이 군영이다. 당시 장흥부의 軍事와 관련된 營을 살펴보면, 수군진 회령포진과 장흥부 船所⁵⁷⁾ 뿐이다. 모두 수군과 관련된 영이다. 육군과 관련된 시설은 당시에 장흥에 존재하지 않았다. 다음의 일기를 보자.

- 1596년 윤8월 19일 녹도로 가는 길에 도양의 둔전을 살펴보았다.

56) 이수경, 앞의 논문(2016), 207쪽.

57) 선소는 시기와 기능에 따라 船倉(倉, 廠), 待變亭, 御變亭, 戰船所 등으로 별칭되었으며,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었지만 군선의 건조·수리, 정박처, 그리고 수군 보급품의 보관·지급하는 공간이었다. 아울러 조운선·상선의 정박·점검·수리도 함께 이루어졌다. 또한 바닷길의 무사함을 비는 祭儀의 공간이자 포구로서 상업 활동이 활발하였다. 이러한 선소는 조선시대 수군력, 수군활동, 수군사, 해양문화 등 연구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송은일, 앞의 논문(2017), 317쪽).

체찰사는 얼굴에 희색이 만연했다. 녹도에 도착하여 잤다.⁵⁸⁾

- 1596년 윤8월 20일 일찍 출발하여 배를 타고 체찰사와 부찰사와 함께 종일 앉아 군사 일을 이야기했다. 늦게 白沙汀에 이르러 점심을 먹은 뒤에 그 길로 장흥부에 이르렀다. 나는 관청의 동헌에서 잤는데, 김응남이 와서 만났다.⁵⁹⁾

위의 일기는 1596년 흥양 녹도진에서 전선을 타고 장흥부로 들어오는 장면이다. 일기의 내용대로라면 전선의 정박처를 백사정으로 오인할 수 있다. 전술하였듯이 백사정은 벽사역 인근 예양강의 강변이다. 전선의 정박처가 아니다. 일기에는 장흥부 선소[군영구미]가 생략된 것이다. 녹도진에서 출발한 전선은 장흥부 선소에 도착하고, 이들은 하선하여 벽사역까지 말을 타고 이동한 후 그곳에서 늦은 점심을 먹고 벽사역 서쪽으로 5리에 있는 장흥부 읍성으로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⁶⁰⁾ 만약 백사정이 전선의 정박처라면 굳이 군영구미까지 이동하여 배설이 보낼 전선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수군진 회령포진에 전선을 정박한 후 이동한 것은 아닐 것이다. 장흥부의 선소가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직전의 1592년 흥양[고흥]에 방문한 이순신의 일기이다.

- 1592년 2월 22일 아침에 공무를 본 후 녹도로 가는데 황속도도 같이 갔다. 먼저 흥양 戰船所에 이르러 배와 기구를 직접 점검하고, 그 길로 녹도로 갔다...⁶¹⁾

58) 『亂中日記』 丙申年 윤8월 19일.

59) 『亂中日記』 丙申年 윤8월 20일.

60) 『新增東國輿地勝覽』 권37, 전라도 장흥도호부 역원조; 벽사역은 부의 동쪽 5리에 있다.

61) 『亂中日記』 壬辰年 2월 22일.

전라좌수사 이순신이 전라좌수영 구역을 돌며 순찰하는 일정 중 홍양현에 도착하여 전선과 기구를 점검하는 날의 기록이다. 홍양 전선소[전소]에는 전선과 기구가 있으므로, 이곳은 전라좌수사의 순찰 대상지였다. 이곳은 바로 홍양 현감이 관리하는 홍양현 소속[읍 수군]의 전선이 정박해 있는 곳이다. 이 외에도 홍양현에는 4곳의 수군진인 녹도진, 발포진, 여도진, 사도진이 있었다. 이곳에는 각각의 전선이 있었으며, 사도첨사를 비롯하여 각각의 만호가 이 전선을 관리하였고, 모두 전라좌수영 관할로 좌수사의 통제를 받는 곳이었다.

임진왜란 당시 전라좌수사 이순신이 작성한 『임진장초』를 통해 순천부사, 보성군수, 낙안군수, 홍양현감, 광양현감이 전선을 이끌고 전투에 참여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전라좌도 연해안 5개 고을[5官]이 전라좌수사 관할에 소속이 되어 유사시 해전에 참전하였다. 이들은 각 지역의 수군진과는 별도로 평소 읍성 가까운 포구에 전선을 마련하여 무기를 갖추고, 격군을 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곳을 軍營이라 할 수 있다. 순천부사 이하 고을 수령이 주관하는 전선을 정박해 놓은 곳이 전소이다.

이는 장흥부에도 적용되었다. 전라우수영에 소속된 장흥 부사도 유사시 전선을 이끌고 전투에 참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평소에 전선을 장흥부 전소에 정박시켜 두고 전선 및 군기를 단속하여야 했다. 장흥부 전소는 장흥부의 전선 정박처이며, 이곳에는 군량 창고 및 군기고와 이를 관리하는 군량 감관 및 색리[監色], 그들의 집무 공간인 관청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요건을 모두 갖춘 곳이 군영이다.

사실 15세기 전반부터 왜구를 막기 위해 연해 지역 방어 체계를 정비하였다. 해상에서 쳐들어오는 왜구를 추격하기 위해 대규모의 수군이 편성되었다.⁶²⁾ 이러한 상황 속에서 15세기 후반부터는, 육

62) 임용환, 「조선 건국기 수군개혁과 해상방어체제」, 『軍史』 제72호, 국방부군사편찬위원회, 2009, 70~77쪽.

군이 단순히 수군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서 연해 군현이 직접 해상 작전에 참여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1474년(성종 5) 홍양현 일대를 침범한 왜구를 물리치는 과정에서 홍양 현감이 선박에 군사를 태워 왜적을 추격하였다.⁶³⁾

16세기 중반 조선은 을묘왜변을 겪으면서 해안지역의 방어 및 수군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왜선이 점차 대형화에 대응하여 전선인 관옥선을 건조하였고 이를 전국에 배치하기에 이르렀다.⁶⁴⁾ 충청도의 경우에는 1557년(명종 12) 태안 일대의 왜선을 추적하는 과정에서,⁶⁵⁾ 경기도의 경우에는 1559년(명종 14) 京江 전선을 훈련하는 과정에서 군현에 전선이 배치된 것이 확인된다.⁶⁶⁾ 경상도의 경우에는 1559년 경상관찰사의 節制에서,⁶⁷⁾ 전라도의 경우에는 같은 해 군산 일대의 왜선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군현에 전선이 배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⁶⁸⁾ 따라서 연해 군현의 전선은 을묘왜변 직후 전국적으로 해방을 강화하는 가운데 배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와 三南 같은 주요 연해 지역에는 적어도 1559년을 전후한 시기까지 전선의 배치가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⁶⁹⁾

16세기 중엽, 진관체제가 제승방략체제로 바뀌면서 전라좌수영은 관할 수군진 뿐만 아니라 연해 지역 각 읍에 수군기지를 설치하여 수군 훈련과 군선 관리 등의 권한을 갖게 되었다. 기존의 수군진 이외에 순천부, 보성군, 낙안군, 광양현, 홍양현, 장흥부까지 관할 지역이 확대되었다. 일례로 1587년(선조 20) 전라좌수사 李薦이 관할 지역의 왜구 수색을 위해 휘하 수군진은 물론이고 순천·낙안·

63) 『成宗實錄』 권46, 5년 8월 丁酉 ; 권56, 6년 6월 壬寅.

64) 노성호, 「明宗代 水軍 強化政策 研究」, 한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23~ 27쪽.

65) 『明宗實錄』 권23, 12년 6월 壬寅.

66) 『明宗實錄』 권25, 14년 5월 己卯, 戊戌.

67) 한성일, 앞의 논문(2018), 243쪽.

68) 『明宗實錄』 권25, 14년 6월 丙午.

69) 한성일, 앞의 논문(2018), 243쪽.

보성·홍양 등 연해 읍까지 소집 명령을 내렸던 것은 그 같은 사실을 말해준다.⁷⁰⁾ 이에 따라 각 읍에 읍 수군이 창설되었고 읍 수군이 주둔할 수 있으면서도 전선을 건조하고 계류시킬 수 있는 장소로 선소가 들어섰다. 여하튼 장흥도호부의 경우 회령포진과 장흥읍 수군의 선소 두 곳이 장흥 땅 군영에 해당되며 이곳이 당시 수군 기지로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 연해 군현은 읍 수군의 전선 정박처를 갖추고 있었으며, 장흥부도 읍 수군의 기지가 있었고, 그곳이 군영구미, 장흥부 선소이다. 장흥부는 大邑으로 선소 또한 中[中邑], 小[小邑]의 규모와 달랐을 것이다.⁷¹⁾

필자는 장흥부 선소를 고증하기 위하여 이순신의 『난중일기』가 작성되던 시점을 전후한 시기 자료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자료적인 한계가 있었다. 그러므로 확보한 조선 후기의 자료를 근거로 추적해보겠다. 선소와 함께 군량창고나 군기고로 활용되었던 공간을 군영으로 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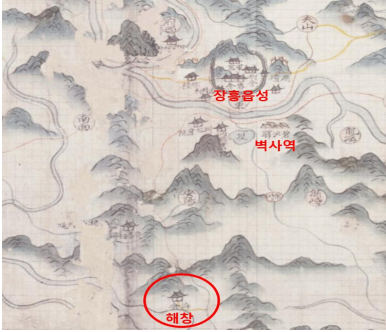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락동 죽림 마을에 1646년(인조 24) 전함과 軍備를 갖춘 待變廳이 설치되었고, 1649년(효종 즉위년) 김해 부사 박경지가 여기에 주둔한 수군들의 군기를 보관하기 위한 창고로 해창을 세웠다는 기록이 있다.⁷²⁾

70) 『宣祖實錄』 권21, 20년 6월 己未; 전라좌수사 李薦은 소집명령 시간을 어겼다는 이유로 순천부사 성응길과 보성·낙안·홍양·광양 등의 수령들에게 매를 때렸는데, 보성군수가 사망했다. 이는 보성 등지가 전라좌수영 관할지역임을 입증한다(송은일, 앞의 논문(2017), 320쪽).

71) 田土의 규모에 따라 邑 이상은 大邑, 邑은 中邑, 縣은 小邑에 해당한다.

72)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부산광역시 강서구 해창; 해창은 조선 후기까지 고을의 조세 현물을 수납하여 보관하였던 창고이다. 그러나 이곳은 서낙동강 물줄기가 서남쪽으로 흘러드는 지점에 있었고, 이러한 지리적 이점으로 전선이 배치되고 지자총(地子銃)·장군전(將軍箭) 등도 구비되어 있는 수진(水陣)의 기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군수물자도 함께 보관하였다.

<그림 7> 비변사인방안지도 장흥부



* 출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그림 8> 해동지도 장흥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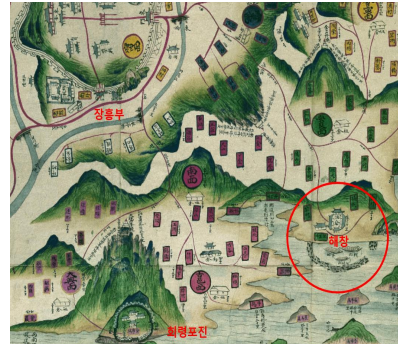
* 출처: 규장각한국학연구원古大4709-41

<그림 9> 광여도 장흥부



* 출처: 규장각한국학연구원古4790-58.

<그림 10> 1872년 장흥부지도



* 출처: 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10439.

장흥부를 그린 「해동지도」와 「광여도」에는 선소와 해창이 별도로 각각 표기된 반면, 「비변사인방안지도」와 「1872년 장흥부지도」에는 해창만 표기되어 있다. 그러나 이 지도상에 표기되지 않았다고 해서 시설물이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1872년 장흥부지도」의 회령포진에는 수군진의 성곽시설이 그려졌으나 선소는 그려지지 않았다. 같은 시기에 제작된 「1872년 장흥부회령포진지도」에는 전선소와 전선, 병선, 사후선이 각각 그려져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조선 후기 장흥부의 고지도에 해창만 표기되어

있고 선소는 표기되지 않아서 선소가 없다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 조선 후기의 장흥읍지류에 수록된 선소와 창고조를 통해 이를 보완해야 한다.

『장흥읍지』(1747) 따르면 ‘장흥도호부 선소는 府 치소 동쪽으로 30리 떨어져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⁷³⁾ 「1872년 장흥부지도」에는 海倉 건물이 부 치소에서 30리로 표기되어 있고, 바로 앞 우측으로 군기고와 석돈, 전선, 병선, 사후선이 각각 1척씩 표현되어 있어⁷⁴⁾ 조선 후기 장흥부 선소는 해창과 동일한 장소, 또는 인근 거리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선소와 해창의 기능이 같다는 것은 아니다. 장흥도호부 선소는 포구 안쪽에 있는 장흥군 안양면 해창마을 일원이다. 각종 지리지와 고지도에서 장흥부 선소의 위치를 살펴보겠다.

『장흥읍지』 안양방 창고조에는 附船所가⁷⁵⁾ 기록되어 있다. ‘선소에는 대선 1척, 병선 1척, 사후선 1척 등이 있으며 좌수영에 속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1816년의 『장흥부읍지』 창고조에는 ‘司倉, 賑恤庫, 大同庫, 軍器庫, 海倉, 南倉, 船倉’이 기록되어 있다. ‘해창은 장흥부에서 동 30리 안양면에 있으며, 선창은 해창에 있으며 장흥부에서 동 30리 거리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렇다면 을묘왜변 후 마련된 읍 수군의 전선 정박처인 선소의 선창은 조선 후기의 해창으로 이어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장흥부의 선소는 군영구미이며 전선, 군기고, 창고가 있으므로 군영에 해당된다. 장흥부 고지도에서는 선소와 해창이 나란히 위치하고 있다. 선소가 해창과 같은 곳에 위치한 것은 이곳의 유리한 지리적 이점을 이용한 것으로 짐작된다. 1555년 을묘왜변 이후 장흥부 읍 수군의 군영이 조선 후기에는 해창의 역할까지 겸하고 있는

73) 『장흥읍지』(奎12175).

74) 『장흥부지도』(奎10439).

75) 附船所는 선소에 붙어있다고 이해된다.

사례로 여겨진다.⁷⁶⁾

읍지류의 기록에는 ‘선창[해창]은 장흥부에서 동 30리 안양면에 있다’고 하였고, 현재는 안양면 해창리 포구가 전선소로, 해창 창고 터는 해창리 156-5,6,7,8,9번지와 158-1번지로 전하고 있다.⁷⁷⁾ 연구자의 견해로는 장흥 회령포진의 포구보다 장흥부 선소가 있는 포구의 규모가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 장흥군 안양면 해창리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그림 11> 1918년 장흥 지형도의 안양면 해창리⁷⁸⁾



<그림 12> 장흥군 안양면 해창리 선소 추정지



76) 정현창, 앞의 논문(2017), 262~293쪽: 정현창은 관(읍)선소의 설치 시기와 위치를 검토하였다. 순천부 선소는 임진왜란 이전에 설치되었다가 임진왜란 당시에는 전라좌수영 관하 순천도호부의 수군기지로 이용되었으며, 홍양 전선소는 18세기까지 축두리에 선소가 있었다고 정리하였다. 낙안군 선소, 보성군 선소, 광양현 선소의 설치 시기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다. 장흥부 선소는 장흥군 안양면 해창리 일대에 위치하며 1703년 이전에 장흥부 선소가 안양면 해창리에 설치되었을 것으로 검토하였다. 그러나 을묘왜변 후 실시되었던 제승방략제를 감안하면 관선소의 설치는 더 이른 시기로 봐야할 것이다. 전라좌수사 이순신의 1차해전인 옥포해전의 장계를 보더라도 보성, 낙안, 홍양 등의 전선이 출전하여 전라좌수사의 지휘를 받고 있다. 필자는 임진왜란 시기 이 지역의 전선 정박처 및 군량, 무기 등을 갖추어 놓은 곳이 특면 비봉리 선소마을, 별교읍 선소마을, 고읍면 축두포 선소마을로 조사한 바 있다. 특히 순천, 보성, 낙안, 광양현은 수군진이 설치된 지역이 아님에도 선소가 운영되었다.

77) 장흥군향토사연구회 제공.

78) 조선조 중엽에 세곡을 수집하여 선박으로 수송한 장흥군의 대항구로 장흥의 삼습(社倉[장평], 南倉[관산])중의 하나였다. 1910년 이곳에 처음 경찰 주재소가 설치되

<그림 13> 현재의 장흥군 안양면 해창마을



<그림 14> 장흥부사 비석군



그렇다고 조선 후기의 해창이 읍 수군의 기지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조선 후기 전라도 일부 군·현 고지도에서 해창과 선소가 별도로 그려진 것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그 사례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있으며, 1914년에는 헌병파견소가 설치되기도 했다. 1914년 안상면과 안하면이 통합이 되어 면사무소가 존치되었다. 1938년에는 해창 간척공사가 완공되어 농경지가 늘어났다. 1928년경 건너편 용산면 두암리와 나룻배가 왕래하였으며, 1940년 해창의 하루 물동량이 약 100톤이 반·출입되었다 하며, 1965년 홍업에서 2차 방조제를 축조하여 간척공사를 하였다. 정묘지(1747년간)에는 해창에 김씨가 살았다고 적혀 있으며, 경술지(1910년간)에는 김해김씨와 밀양박씨가 거주하고 있다고 되어있다(장흥문화원, 『해창리 마을의 연혁』, 『안양면지』, 1997, 612쪽).

<그림 15> 전라좌수영 관할 4관의 선소

순천부 선소(여수시 시전동)79)



보성군 선소(특량면 선소마을)80)



낙안군 선소(별교 선소마을)81)



광양현 선소(진원면 선소마을)82)



- 79) 1872년 순천부 고지도에는 해창(읍에서 동으로 20리 거리)과 선소(읍에서 남으로 50리 거리), 선소창이 별도로 기록되어 있다. 선소에는 전선이 그려진 반면, 해창에는 창고만 그려져 있다.
- 80) 1872년 보성군 고지도에는 해창(읍에서 30리 거리)과 선소(읍에서 50리 거리)로 위치가 다르다. 선소에는 전선과 관아 건물이 그려져 있으며, 해창에는 창고만 그려져 있다.
- 81) 1872년 낙안군 고지도에는 해창(읍에서 20리 거리), 선소(읍에서 30리 거리)로 위치가 다르다. 선소에는 전선과 水軍器庫가 그려져 있으며, 해창에는 창고만 그려져 있다.
- 82) 1872년 광양현 고지도에는 해창(읍에서 10리 거리)과 선소진(읍에서 50리 거리)로 위치가 다르다. 선소진에는 전선이 그려진 반면, 해창에는 창고만 그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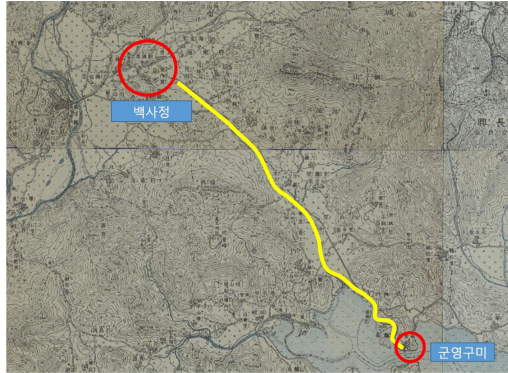
전라좌수영 관할 5관 중 순천부의 선소는 현재 여수시 시전동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392호 여수선소유적이다.⁸³⁾ 여수는 1897년 읍지 지역에 여수군이 신설되어 순천도호부에서 분리, 독립되었다. 1897년 이전까지 이곳은 순천부의 선소였다. 장흥부의 선소를 순천부의 선소와 비교하면 비슷한 입지환경과 규모를 예상할 수 있다.

임진왜란 시기 장흥부는 전라우수영에 속하였다. 전라좌수영의 읍수군인 순천부, 보성군, 낙안군, 광양현의 1872년 고지도를 살펴본 결과, 이곳은 부·군·현 읍수군 선소와 별도로 해창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의 위치는 서로 가까이 있거나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였다. 해창에는 창고만 있으며, 부·군·현 읍수군 선소에는 관아건물, 선창, 군기고, 전선이 그려져 있으므로 군영의 역할을 읍수군 선소가 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구미와 군영을 분석하면서 군영구미의 위치를 고증하여 보았다. 본문에서 논하고 있는 장흥땅 백사정과 군영구미를 길로 표시하면 현재 장흥군 장흥읍 관덕리·원도리에 흐르는 예양강변 둔치와 안양면 해창리 해창마을이다. 간척되기 이전의 1918년도 지형도에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83) 이 선소는 1555년 이후 조성되어 1895년까지 순천도호부의 선소로 운영되었을 것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392호의 명칭이 합당해 보이지 않는다. 여수군명은 1897년에 신설되었다. ‘순천도호부 선소유적’이 적합한 사적 명칭으로 사료된다.

<그림 16> 장흥 백사정~군영구미 이동로
(1918년 장흥 지형도)⁸⁴⁾



4. 맺음말

본고에서는 이순신의 『난중일기』에 기록된 장흥 땅 백사정과 군영구미의 위치를 검토하였다. 일기 번역자, 연구자마다 백사정과 군영구미의 위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조선수군재건로를 조성하기 위해 고증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비교·분석이 미약하였다.

기존의 일부 연구에서 장흥 땅 백사정을 보성군 회천면 명교해수 욱장으로 추정하였다. 조선 후기 장흥의 지리지의 정경달의 정자 백사정에 관한 기록을 확대 해석하였다. 1966년 『보성지』에 백사정이 정유재란 이충무공수군수비처로 기록되면서 이후 보성에서 발간된 향토사, 마을유래지, 조선수군재건로를 고증한 기초조사 보고서에 이러한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었음을 검토하였다.

84) 1918년 지형도에는 벽사도에서 안양면 해창으로 가는 길이 있다.

이순신의 『난중일기』에 나타난 ‘점심’의 용례를 검토해 본 결과, 점심을 먹는 곳이나 지어 먹는 곳, 말에게 여물을 먹이는 장소가 주로 驛, 院, 汀이었다. 보성읍성을 출발한 이순신 일행은 驛路를 따라 이동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백사정은 장흥부 벽사역에 도착하기 전의 예양강 강변 둔치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벽사역으로 이동하여 점심을 먹었다.

임진왜란 당시 전라좌수사 이순신이 작성한 『임진장초』를 통해 순천부사, 보성군수, 낙안군수, 흥양현감, 광양현감이 전선을 이끌고 전투에 참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전라 좌도 연해안 5개 고을 수령은 전라좌수사에게 소속되어 유사시 해전에 참전하였다. 이들은 각 지역의 수군진과 별도로 읍성 가까운 포구에 전선을 정박하고 무기를 갖추었으며 격군을 운영하고 있어, 그곳은 군영이었다. 장흥부의 선소는 전선, 군기고, 창고가 있으므로 군영에 해당된다. 장흥부 고지도에서는 선소와 해창이 나란히 표현되어 있다. 선소가 해창과 같은 곳에 위치한 것은 이곳의 유리한 지리적 이점을 이용한 것으로 짐작된다. 현재 장흥군 안양면 해창마을을 군영구미로 추정하였다.

(원고투고일 : 2020. 6. 14, 심사수정일 : 2020. 8. 13, 게재확정일 : 2020. 8. 25.)

주제어 : 이순신, 난중일기, 조선수군재건로, 백사정, 군영구미, 예양강, 벽사역, 장흥 선소, 장흥 해창

<참고문헌>

1. 사료(발간연도순)

『朝鮮王朝實錄』, 『長興邑誌』(1747), 『戶口總數』, 『湖南邑誌』, 『湖南驛誌』, 『長興邑誌』(1910), 『寶城誌』(1924), 『寶城郡誌』(1966)

2. 단행본

이은상, 『(國譯註解)李忠武公全書』(1960), 충무공사업회
보성군향토사편찬위원회, 『보성군 향토사』(1974), 호남문화사
조성도, 『충무공의 생애와 사상』(1989), 명문당
보성군, 『보성군 마을 유래지』(1990), 보성문화원
장흥문화원, 『안양면지』(1997)
박혜일 외, 『(번역)이순신의 일기』(1998), 서울대학교출판부
송찬섭, 『난중일기』(2004), 서해문집
노승석, 『이순신의 난중일기』(2005·2016), 동아일보사,
<http://uci.or.kr/G901:A-0006109426@N2M>
박중평, 『난중일기』(2018), 글항아리
장흥문화원, 『장흥읍지-2편 마을사』(2018)

3. 논문

문영구, 「全羅左水營 및 管下 五官·五浦의 史蹟」, 『여수수전대논문집』
제9~12권(1978), (사)대한건설진흥회
박형상, 「이충무공과 전라도 장흥의 관계 연구」, 『이순신연구논총』 제
9호(2007),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노기욱 외, 「이순신의 ‘상유십이’ 수군보존 현장 보성군 고찰」, 『이순신
연구논총』 제22호(2014),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이수경, 「정유재란시기 이순신의 수군재건 활동과 보성군」, 『충무공 이
순신과 한국해양』 제3호(2016), 해군사관학교 해양연구소

정현창, 「조선후기 전라도지역 船所址와 활용방안 연구」(2017), 전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송은일, 「조선시대 전라좌수영 관할지역의 船所연구」, 『軍史』 제105호 (2017), 국방부군사편찬위원회

<http://dx.doi.org/10.29212/mh.2017..105.317>

한성일, 「16세기 중·후반 연해 군현의 戰船 배치와 운용」, 『지역과 역사』 제42호(2018), 부경역사연구소

<http://dx.doi.org/10.19120/cy.2018.4.42.229>

이수경, 「임진왜란 시기의 통제영 운영과 유적 활용방안 연구」(2020), 전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4. 보고서

박창규 외, 『남도 이순신 길 조선수군재건로 고증 및 기초조사』(2013), 전남도립대학교·전라남도청

(Abstract)

Reviewing the location of Baeksajeong and Gunyeonggumi
of Najungilki's
(Admiral Yi sun-sin's diary during the war)

Lee, Su-kyong

When we choose the most notable figure and events in our history,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so called Imjinwaeran and the admiral Yi Sun-sin could be shown at the top of the list. So Geographical clarifications and locating the exact points associated with the historical figure and events are generating a lot of interest, leading to and accumulating various studies. However, many of these studies lack clear and exact historical evidence or on-site inspections. Geographical criticism sometimes suggests various opinions about one place for each translator's perspective of 『Najungilki』, researcher of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and researcher of local history.

This study is also intended to try accurate historical evidence of the place.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study the location of 'Baeksajeong(白沙汀) and Gunyeonggumi(軍營仇未)' recorded in Yi Sun-sin's 『Najungilki』. This is an important point related to Yi Sun-sin's activities for the reconstruction of the naval forces right after the Battle of Chilcheon-ryang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broken out in 1597 after Imjinwaeran in 1592. First of all, we compared and reviewed the contrasting views on the location of the Baeksajeong and Gunyeonggumi in Jangheung Land as Boseong and the views of Jangheung as Jangheung. Next, my opinion was presented through the study of ancient literature and field trips. This work is believed to help the historical sites and historical sites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In addition, I hope that it will help establish a proper local history. It is hoped that the results of these historical research and

on-site investigation will be reflected in the local government's historical tourism resource development projects.

Keywords : Yi sun-sin, Najungilk, Joseon Navy jaegonlo, Reconstruction, Baeksajeong, Gunyeonggumi, Yeyang River, Wall Ministry, Jangheung Seonso, Jangheung Haechang

